

윤곽 드러난 광주 새 야구장



광주 무등경기장 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야구장이 21%의 공정률을 보이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무등경기장 철거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새 야구장은 지하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하 3층, 지상 3층에 2만5000석을 갖춘 개방형 구장으로 지어지는 새 야구장은 오는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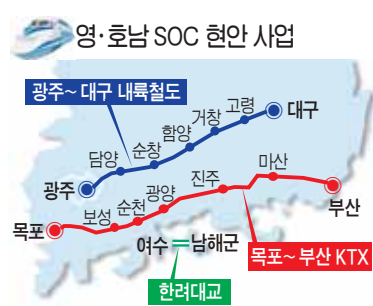
영호남 인적·물적교류 경제효과 높이자

■ 광주·대구, 전남·경남 대선 공동공약 요구

양 지역 연결 SOC 사업 확충해 경제·관광 활성화로 돌파구 찾기

호남과 영남지역 지자체들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SOC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지역 감정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이들 지역의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해안 일대 도로와 철도 등의 신설·확충은 필수적이다. <광주~대구, 공동 성장 노린다> '달빛동맹'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광주와 대구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편한 교통인프라다. 일본 등 가까운 국가도 1일 생활권에 들어선 현재,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와 대구는 두 도시를 잇는 제대로 된 도로 한곳이 없는 실정이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사정이 워낙 열악한 탓에 하루만에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다. 결국 인적·물적 교류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와 대구는 내륙철도와 88올림픽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공동으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동과 서를 대표하는 내륙도시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시 복구를 시작으로 담양군을 지나 순창군~남원시~함양군~거창군~함천군~고령군을 거쳐 대구까지 총연장 191.6km, 총 사업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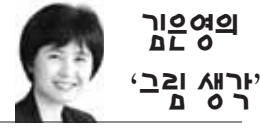
조 89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동서지역 교류는 물론 인근 전남과 경남지역 등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영호남 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공사 중인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지난 1984년 국내 유일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로 개통된 뒤 높은 사망사고율 때문에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도로다. 하지만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이 도로 덕분에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 지기도 했다. 정부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 11월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나섰지만,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2년 늦춰졌다. 이마저도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는 동과 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내륙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철도와 도로 등의 건설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남, 남해안 관광 공생> 목포~부산KTX 조기 완공과 한려대교 건설은 남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SOC



로 꼽히는 사업이다. 목포~부산간 KTX 건설은 목포~순천~진주~부산을 잇는 347.2km에 달하는 노선을 복선 고속화 하자는 사업이다. 현재 7조5000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복선 고속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부산~진주~순천 구간이 복선화되고, 2020년까지 광양~순천 구간 전철화와 진주~광양 전철화, 순천~목포 복선전철화 추진 계획이 잡혀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과거에 했던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남도와 부산시·경남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2020년 내 완공을 건의하고 있지만 기간 내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전남 구간의 예산지원은 목포~보성간 10억원 뿐이다. 목포~부산KTX가 완공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가 되고, 부산·경남지역도 대중국 무역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낙포동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는 길이 4.2km, 폭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1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현재 1시간 30분 이상인 두 지역간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화려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여수, 남해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경남 남해군이 '지역발전 전략수립 및 국고예산 확보 국회의원 간담회'의 핵심 사안으로 한려대교 건설을 꼽는 등 전남과 경남지역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화의 달빛사랑 ... 그리운 고향 보름달 되어 '등실'

<김환기>



김은영의 '그림 생각' '4 보름달'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 내 마음에 도 생전 처음 환한 달이 떠오르고 /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김은영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중에서>



김환기 작 '山月'(1959년)

며칠 전, 한가위날 하늘 높이 떠오른 보름달은 유난히도 동그랗고 환했다. 누구라도 가던 길 멈춰 서서, 누군가와 달빛 통화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위해 간절 한 기도를 하고 싶어졌을 만큼 온 밤이 은은했다. 만월은 달을 수 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비춰주기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인에게 소망과 동경, 그리움과 애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작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달을 예찬해왔다. 국내 추상미술의 역사라 할 수화(樹畵) 김환기(1913~1974)에게 '달빛 사랑'은 애뜻한 노스텔지어였다. 수화는 신안 안좌도에서 태어나 일본유학, 서울대·홍익대 교수, 파리 체류 그리고 뉴욕 정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기'를 반복했던 현대적 유목민이었다. 미술의 본고장 파리와 뉴욕에서 거센 외래문화와 맞닥뜨릴수록 수화는 자신만의 양식을 인식하려 했고, 그로 인해 '동양 사람의 그림, 한국 사람의 그림'을 더욱 모색하고자 했다. 달항아리, 청자, 파반 등의 전통기법과 한국 자연 풍경을 작품의 주제로 탐구하게 된 이유다.

지난 1970년 그가 쓴 글을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헤아릴 수 있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산월'(山月·1959년)은 푸르스름한 공간에 그려진 산과 달이 한 화면에서 사실성과 추상성의 공존으로 어우러진다. 다색 띠를 두른 달에는 수화가 일생을 통해 그리워했던 고향의 하늘과 두고 온 인연들의 모습이 어리어리 있는 듯하다. 세상의 심성이 거칠어질수록 '고향'의 의미와 심상은 더욱, 못내 그리워지는 것인가.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TRUE PRODUCTS, REAL PEOPLE

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

밀레 기술교토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 주최: MILLET / 주관: Mtour / 후원: 광주일보사

여섯번째 시행 10월 26일(금) / 내장산 [사레탐방지원센터(행사장)-불출봉-원적암-산삼약수-내장사-주치점]

일곱번째 시행은 천관산입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아울렛	롯데아울렛광주점 062-616-2221	익산백화점 063-838-9293	밀레광주아울렛점 062-385-5555	NC순천 061-726-5417	직영점												
광주직영점	062-266-8948	대리점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광주청단점 062-973-7775	밀레광주진월점 062-674-588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양힐성점 061-761-7524	밀레목포점 061-282-8523	밀레순천점 061-745-3068	밀레여수점 061-666-1921	밀레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군산수송점 063-445-4747	밀레김제점 063-544-7651	밀레남원점 063-626-7889	밀레전주송천점 063-276-3031	밀레전주중앙점 063-225-0789	밀레전주중화산점 063-229-7676	밀레전주호지점 063-272-3668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빛의만평

- 김중두

끝까지 국민은 '봉'이군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